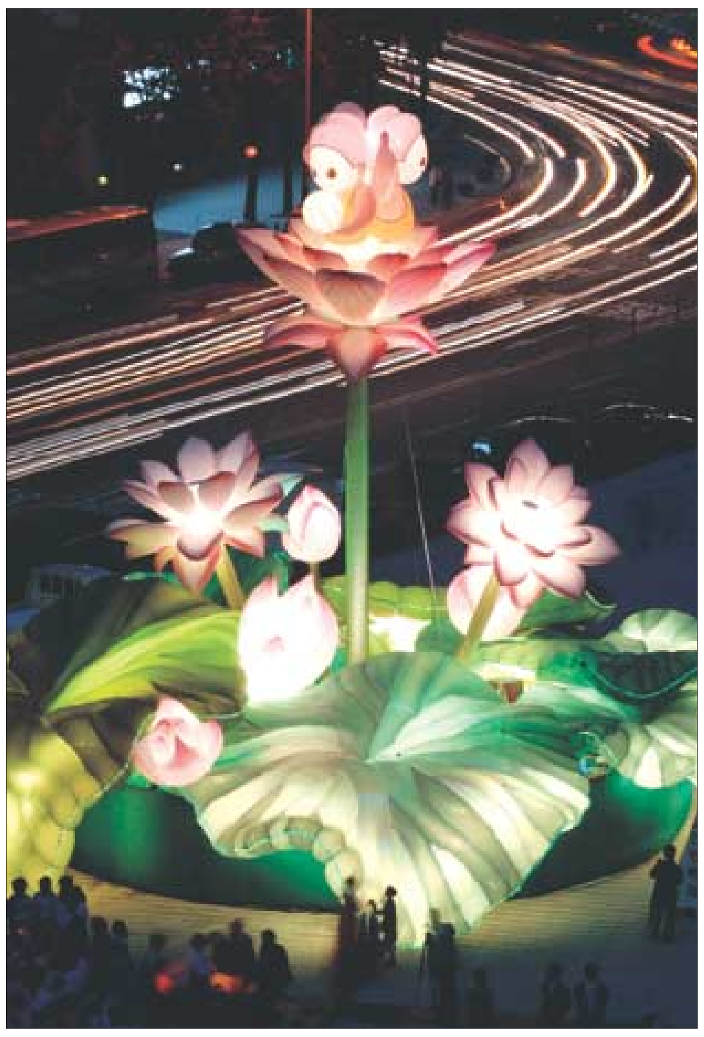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우리이웃
ARS:060-700-1080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5월 19일(음력4월 1일) 수요일 (주간) 제474 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평화와 나눔의 봉축등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서울 한복판에 ‘평화와 나눔’의 등이 밝혀졌다. 전쟁과 고통이 없는 세상, 나누면서 상생하는 세상을 염원하며 5월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축조형물 점등식이 봉행됐다. **관련기사 6면** 사진=박재완 기자

▌간화선 중흥 열쇠는 무엇?

“수행 여건 만들기 나서자”

공간확보 · 지도 점검시스템 가동돼야

선원장 좌담서 ‘禪바람 진작 포인트’ 지적

‘전통 선(禪)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선풍(禪風)을 어떻게 실참으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지난 2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2월 15일~5월 9일)를 필두로 봉은사의 ‘봉은학림 육조단경 논강’(2월 21일~4월 10일), 보문사의 ‘선사 초청 산림법회’(3월 21~27일) 등 참선법회가 사부대중의 호응 속에 회향된 것을 계기로 전국에서 ‘선(禪) 바람’이 불고 않다. 그러나 모처럼 진작된 수행 분위기를 어떻게 일상 속의 수행으로 정착시킬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재가자에게는 시민선방(50여곳에 불과)도 부족할 뿐더러 마땅한 지도자도 없이 참선 공부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선원장 초청대법회’ 회향을 맞아 5월 7일 본사에서 선원장 법회에 참석했던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과 현웅 스님(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을 비롯한 인경 스님(조계종 수행체계연구위원), 김태완 무심선원 원장을 초청, ‘간화선 중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집좌담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선원장 초청법회가 1회적으로 끝나서는 안돼며 수행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공간 마련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좌담자들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의 수행체계 확립방안과 선(禪) 교육제도의 보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위빠사나와 제3 수행법에 대해서도 조계종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선원장회의 의장 혜국 스님은 “선원장 법회에 2~3천 명씩 모인 그 열기를 어떻게 그릇에 담을 것이냐 고민이 되었다”며, “종단에서는 간화선을 학문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발심을 통해 스스로 증득해가는 수행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웅 스님은 “간화선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승가에 책임이 있다. 스님들이 확실히 간화선을 맛보고 그것을 현대화해 물질문명에 젖은 대중 속에서 선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장)은 “참선 법회를 당해 사찰이나 몇군데서 실시하기 보다는 종단에서 전체적인 승가교육과 연계시켜 정기적으로 지속했으면 한다”며 “조계종 수행 및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선어록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등 간화선의 대중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원장은 “<청정도론>과 같은 체계적인 수행지침서도 필요하지만, <육조단경>이나 <서장> 등 선어록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교재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원장 법회에서 법문했던 스님들은 선(禪)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인식하고 재가자 수행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혜국 스님은 5월 15일 충주에 참선전문도량인 석종사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집중적인 참선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현웅 스님도 5월 23일 서울 가회동에 미국 육조사 서울분원을 개원, 국내 불자들을 중심으로 선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은 10월경 보살선원을 개원, 상설 선 수련회를 열 계획이다.

모처럼 불고 있는 ‘선(禪) 바람’과 관련, 종단차원에서 간화선 수행풍토의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올바른 조사선의 수행법과 문답법, 지도점검 체계 등을 파악해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관련 좌담 11 · 12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전국선원장 초청법회…5월 9일 회향

조계사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주최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가 성공리에 회향됐다. 설정 스님(수덕사 수좌)의 법문을 끝으로 총 12회(2월 15일~5월 9일)에 걸쳐 진행된 이 법회에는 매주 2~3천여명, 연인원 3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조사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5월 9일 조계사에서 열린 회향식에서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선 간화선 수행방편이 현대인의 패턴에 맞게 재정립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은 “앞으로도 큰스님들의 영상 및 육성 법문 자료를 개발하는 등 공부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11 · 14 · 32 · 33면

김재경 기자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한 달 내내 ‘봉축특집’…금주 40면 발행

‘현대불교’는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봉축 특집’을 연속 발행합니다. ‘현대불교’의 특집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봉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봉축특집 주요 주제

▶첫째 주 (5월5일자) 나눔의 손잡기
▶둘째 주 (5월12일자) 오늘의 세계불교
▶셋째 주 (5월19일자)
알고 싶어요 부처님 오신날 ―― 4면
주요종단 봉축법어 ―― 5면
선원장 초청대법회 법문 핵심 ―― 11면
좌담, 간화선 중흥 어떻게 할 것인가 ―― 12 · 13면
선원장 초청대법회 무엇을 남겼나? ―― 14면
외국차가 몰려온다(하) ―― 35면
빛나간 웰빙 열풍 ―― 39면
▶넷째 주 (5월26일자) 줄어드는 불교 인구, 대안을 찾아라
길에서 맞는 부처님 오신 날

용천 희생자 애도합동법회

진각종, 6월 3일 北 보현사서

용천역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남북 합동법회가 6월 3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열린다.

진각종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 위원장의 초청으로 진각종 대표단이 6월 1일부터 5일까지 북한을 방문, 용천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합동법회를 열기로 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법회에는 효암 통리원장, 재무부장 수성 정사 등 진각종 대표단과 황병준 조불련 부위원장, 심상진 서기장 등 북측 관계자와 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주요 종단 종정 봉축법어 발표 5면

몸 바꾸고 새 마음으로…

문화재청, 기획관리관 신설 등 첫 조직 개편

지난 3월 차관급으로 승격된 문화재청이 첫 번째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5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획관리관(국장급)과 홍보담당관(과장급)을 신설하고, 기획관리관 아래에는 혁신인사담당관과 기획인사담당관이 생긴다. 이에 따라 11명이 증원된다.

이외에 기존 국 · 과의 명칭도 바뀐다. 건조물국은 사적 · 명승국, 문화재기획국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보과는 문화재교류과, 궁원문화재과는 궁릉활용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 정비로 불교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기획관리관과 홍보담당관은 차관청 승격에 따라 신설되는 기본적인 부서로 문화재 행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경된 국 · 과의 명칭에서는 문화재 정책 방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건조물국을 사적 · 명승국으로 바뀐 것은 문화재 보존 대상을 역사 · 문화환경으로 넓혀가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결과로, 사찰에서도 탑이나 대웅전 등 지정문화재와 함께 사찰 경내 문화재 환경을 함께 보존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궁릉활용과는 문화재 원형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이 문화재 활용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증원되는 11명에 학예직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11명은 학예직과 행정직 모두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정할 예정이고, 앞으로 문화재연구소에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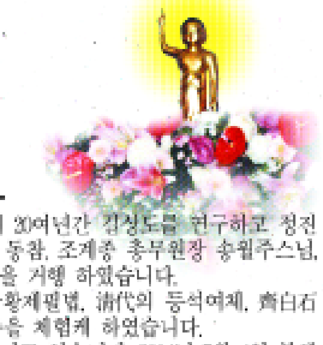
현대불교 구독료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안전하고 편리하게 (02)737-0090, 737-8881

‘할’

그림 · 조태호

설정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32, 33면에서 만나세요)

봉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축
제9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스님 대길상도 작품전 원만회향기념
나라번영 불교중흥기원 대법회
제9회 대제전에 동참하신 10,000여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스님이 30여년간 길상도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새봄에 봉행한 제1회 제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月下 大宗師께서 친히 임석 증명법어를 전하시고, 당시 대통령 축전으로 축하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이수성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와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만히 성취 되었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금년 제9회 대길상도전을 거행 하였습니다.
길상은 불교의 법구비유경 제4권에 상세히 설하여져 있습니다. 제9회 대제전 작품은 대길상도와 함께 왕희지체 서법, 漢代의 예서체, 역대 중국황제필법, 淸代의 등석여체, 齊白石필법 등 法書 작품을 연마하여 道와 예술의 심오한 경지를 성취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力作들로 동참한 1만여 사부대중의 가슴에 무한한 감동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대제전은 그동안 불교계 대표적 문화제전의 한 흐름으로 뿌리내려 불교발전과 밝은사회 구현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격려와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4일 봉행된 기념대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큰스님께서 대법회에 친히 임석 소중한 법어를 전하시어 心祝 하셨습니다. 사부대중의 가슴마다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영축통도사주지 현문스님,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파르다 싸라디 레이 주한인도 대사,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 롯데그룹 신병호 고문 등 여러분이 직접 법회에 동참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청와대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등 각계인사 다수가 축하의 뜻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제전부터 9회제전에 이르기까지 후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btn불교텔레비전, BBS불교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대한불고신문 등 관계기관 여러분과 동참하여오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나라의 번영, 역사의 발전과 불교중흥의 영광된 길에 더욱 헌신하고 용맹정진 할것을 서원합니다. 제9회 대제전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장엄하게 봉행하고 그 공덕을 법계에 회향하고자 기념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선근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世界的 禪筆 天馬圖 구도적 예술세계

❀ 2004년 5월 4일 3,000여명이 동참한 제9회 대제전 기념대법회 장면

❀ 기념대법회 : 2004년 5월 19(수) 오전 11시(1차)
2004년 5월 25(화) 오전 11시(2차)
❀ 장소 : 서울 강남 소림정사
❀ 관불의식, 법문, 전통불교예술제, 기념찬불공양
❀ 동참 불자님께 불교경전 기도용 디포, 성취기원호신불 등을 법보시 합니다. ❀ 당일 참석 불자님께 玉龍子스님 친필 佛자 무상 보시 합니다.(한정 수량)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3446-2158,2185, 511-6210~5, 3443-9871~7 FAX:511-6214

九龍海樹長珊瑚
玉龍子